

판소리 '흥보가' 완창무대 펼쳐진다

국립민속국악원, 11일 정상희 동초제 흥보가 완창공연

국립민속국악원(원장 김중현)에서는 오는 11일 오후 3시, 판소리 마당 '소리 판' 무대를 통해 정상희의 동초제 흥보가 완창무대를 4시간 30분 동안 선보인다.

예문헌에서 열리는 완창무대는 판소리 완창공연의 정착과 판소리의 계승·보존, 그리고 판소리 대중화에 힘을 보태고자 2020년부터 국립민속국악원에서 시작한 대표적인 기획공연이다.

무대의 주인공인 정상희는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판소리 흥보가 이수자이자 제26회 임방울 국악제와 제23회 대한민국 남도민요 경창대회에서 2번의 대통령상을 받은 명창이다.

동초제는 유성준, 송만갑, 정정렬 등 당대 명창들로부터 배운 소리에서 장점을 골라 독자적인 소리를 완성한 김연수 명창의 호인 '동

초'를 따서 붙인 판소리로 김연수-오정숙-김명신-정상희로 이어지고 있으며, 특징은 동편제 계열의 흥보가처럼 대부분 놀보가 '제비 물러나가는 대목'에서 끝이 나는 소리와 달리 후반부에 상여꾼, 초라니패, 사당패, 각설이패 등이 등장해 권선징악을 펼치는 내용이 해학적으로 첨가되어 있다.

이번 무대를 통해 정상희는 정확한 발음과 정교한 발림, 감정 표현이 뛰어난 소리로 관객들을 흥보가 속으로 친근하게 이끌어가길 것으로 기대되며, 고수에는 판소리 고법 예능보유자 김청만 명고, 정음시립국악원 고법반 교수인 박상주 명고가 함께한다.

이번 공연은 전화(063-620-2329) 또는 국립민속국악원 카카오톡 채널(상담원과 대화), 누리집(<https://namwon.gugak.go.kr>)을 통해 예약할 수 있다.



국립민속국악원 판소리 마당 소리 판 포스터

11월 11일 (토) 15:00 국립민속국악원 대공연장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한벽문화관 라이징스타 시리즈, 예술인 발굴 주목

사업 참여 원정인·김범준 학생,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 합격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한국음악과 재학 중인 원정인·김범준 학생이 2024년도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 음악과에 최종 합격했다고 전했다.

원정인·김범준 학생은 전주한벽문화관이 주최한 2022년 라이징스타 시리즈 사업에 참여해 예술가로의 성장 가능성을 주목받았다. 이후 원정인 학생은 2023년 전주마당창극 전국 공개 오디션에 당당히 합격해 예술의 폭을 넓혔으며, 김범준 학생은 2023년 라이징스타 시리즈에 고수로 참여하여 후배들의 무대를 빛내어 주는 등 지역 예술 발전에 기여했다.

라이징스타 시리즈(차세대 예술인 발굴 프로젝트)는 지역 내 순수예술 관련 학과 통합합격증에 따른 문화예술 인재 양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지역 예술인 발굴에 집중하고자 2022년 신규사업으로 진행, 전북대학교 예술대학 한국음악학과, 한국전통문화고등학교, 전주대학교 문화융합대학 음악학과 등과 협약을 맺어 올해 시즌2로 진행 중이다.

이와 더불어 전주마당창극은 전통자원인 판

소리를 예술적 요소의 핵심으로 하되 지역의 소재를 활용 및 현대적 요소를 가미한 전주만의 특화된 문화관광콘텐츠 상품으로, 지역의 예술인과 협업을 통해 개발되는 전주 한옥마을 대표 야간 상설공연이다.

원정인 학생은 "전주마당창극과 라이징스타 시리즈 사업을 통해 얻은 풍부한 경험으로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며 "우리나라 예술 분야 최고의 교육기관인 한국예술종합학교에서 판소리를 깊고넓어 우리 지역을 빛낼 수 있는 예술가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김범준 학생은 "훌륭한 선생님들과 교육환경 속에서 이러한 성과를 이뤘다"며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주한벽문화관 라이징스타 시리즈 사업을 통해 우리 지역에서 예술가가 많이 발굴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전주한벽문화관 김철민 관장은 "지역의 차세대 예술인들의 참여 폭을 넓혀 전주의 예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장은성 기자

35년 만에 재회한 모녀 이야기 담은 가족 연극 '찰칵', 16일 완주서 공연



완주문화예술회관 2023.11.16.(목) 오후 7시 찰칵

독립로 입양돼 35년 만에 재회하는 모녀의 단 하루의 이야기를 담은 가족 연극 '찰칵'이 완주군을 찾는다.

오는 16일 오후 7시 완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는 '찰칵'은 한국문화예술연합회가 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2023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 공모·선정작이다. 모녀의 이야기를 통해 단 한 번의 만남이 사진이 찍힐 때 나는 '찰칵'처럼 매우 짧지만, 인생의 가장 빛나는 순간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모녀의 진심 어린 '미추함'을 통해 개인과 서로의 삶을 살펴볼게 한다.

'찰칵'은 이 '미추함'의 시간이 지금을 사는 인간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언어이자 몸짓이며, 그 언어가 많은 대중에게 더 전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획됐다.

공연 예약은 완주문화예술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다. /원주=염재복 기자

제16회 진안예술제 개최

사)진안예총 진안지부(회장 유종구)는 지난 3일 지역 예술인들의 축제인 진안예술제를 전통문화전수관에서 개최했다.

올해로 16회를 맞이한 이번 행사는 국악협회의 길놀이로 시작으로 예총산하 5개 협회(국악, 문인, 미술, 음악협회, 연예예술인) 회원들

의 수준 높은 공연과 작품전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등 풍성한 볼거리, 즐길거리로 구성됐다.

창립 20여년이 된 한국예총 진안지회는 얼마 전 조직된 연예예술인 협회를 포함하여 5개 협회로 구성돼 있으며, 지역 문화예술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꾸준한 노력과 열정을 다해 왔다.

/진안=우태만 기자

화합과 소통 위한 진안군민 평화 콘서트

7일 진안성당서 종교단체와 공동 주관 음악으로 하나 되는 소통 시간 마련

진안군은 오는 7일 진안성당에서 '화합과 소통을 위한 진안군민 평화 콘서트'를 개최한다.

진안군 종교단체와 같이 주관해 진행되는 이번 평화음악회는 불교 진안군 사암연합, 진안군 기독교연합회, 천주교 전주교구 진안성당이 화합해 함께 개최된다.

이는 지난 4월 처음으로 정춘성 진안군수와 관내 종교단체 대표들과의 만남이 성사된 이후 급변하는 현대사회 흐름에 발맞춰 서로의 전통성은 유지하되 종교 간 벽을 허물고, 이해를 바탕으로 화합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음악회는 보컬, 소프라노, 베이스 음악과 함께 국악밴드 소리앓, 재즈밴드 앙상블 코코렐라의 공연으로 진행된다.

군은 불교, 기독교, 천주교 등 종단이 한 자리에 모여 음악으로 하나 되는 소통의 시간이 될과 동시에 깊어가는 가을 밤 군민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음악을 선보일 예정이다.

정상식 문화체육과장은 "서로 다른 종교이지만 한마음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평화 콘서트를 준비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하



2023 CONCERT FOR PEACE IN JINAN '하늘'로 연결되는 '평화' 2023.11.07. 18:30 진안성당

며, 모든 군민이 즐길 수 있는 공연이오니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문화재단, 유정수 대표 초청 팔복명사특강

13일 팔복예술공장에서 '팔복동 공장마을 프로젝트' 주제 강연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백옥선)은 오는 13일 오전 11시 팔복예술공장에서 유정수 대표(글로벌우서울) 초청, 팔복명사특강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MBC '빈집살래' 프로그램에서 버려진 팔복동 빈집 일대를 이색명소로 재탄생시키며 업계 내 독보적인 존재로 평가받는 유정수 대표는 이번 특강에서 '팔복동 공장마을 프로젝트'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번 특강에서는 '새로운 민간협력 도시재생 모델: 팔복동 공장마을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역맞춤형 공간기획과 브랜드에 대해 시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아울러, 브런치 인문학 특강 형식으로 음료와 브런치가 제공, 편안하고 친근한 분위기의 강연이 될 전망이다.

백옥선 대표는 "팔복동 공장마을에 활력과 많은 변화를 가져온 유정수 대표의 이번 특강에 많은 기대가 된다"며 "이번 특강에 예술가 뿐만 아니라 요리업, 서비스, 관광,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참여를 원하는 시민 누구나 1만원의 참가비로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60명을 모집한다. /장은성 기자



2023 팔복예술대학 4기 2학기 '팔복명사특강' 유정수 2023.11.13. 11:00 - 12:00

신청은 11일까지 재단 누리집(www.jcf.or.kr)에서 가능하다. 방문 접수 등 기타 문의는 재단 문예진흥팀(063-211-9270)으로 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희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동루(廣東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연조 16년(1633)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각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이름에는 사방이 트이기쯤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도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